# 京城의天空에赤旗를날리고자
# 赤露新領事昨夜來着

# 朝鮮事情을研究

領事館事情을記者에게

# 大震災二週紀念日에 悲痛한慘死者追悼

# 虎列剌豫防으로 漢江水使用禁止計劃

호렬자비슷한병만발견하는동시에는 도령으로발표하야실시할터이라한다

……한것입으로 그릅로는 아모一것도하지못하게될터이라더라

## 日本에서는 三十萬人動員

횡빈에서는사망자가륙명

……횡빈시(橫濱市)에 발생한 호렬자는 더욱창궐 하야새 환자를속출함으로 신내천현(神奈川縣警察部)와수상서(署)에서는 필사적으로 예방……이며 동경시(東京市)도 위험하게 되엿슴으로 동경에는 만일을 념려하야청년단(靑年團)재향군인(在鄕軍人) 위생원(衛生員)의사(醫師)삼십만명아 총동원하야 예방을하려는방침을 세웟는데 이미횡빈에서공렬자는로 죽은사람이 여섯명이오 새로히 환자두명이발생되엿다더라(횡빈뎐)

## 日人漁船이 朝鮮漁船을擊碎

……고 고기잡는 작업을휘방하야 드듸어……엇다한다 사실은……오전열한시경에 부천군……모도리(富川郡北島面茅……)근새우잡이 어장(捕蝦漁……)인천부신뎡십구번디유……(川府新町有富與)(三三)의……천송리환(松利丸)이 돌려와서 작업중에잇든그……선장순(吳昌順)의소유어선……파선되얏는데 그즉시동……조에노력한결과 쌔어진……원들의 생명은 구하엿스……든어룡과 기타적재품은……실되얏는데 손해와원인……조사중이더라(모도)

## 清川江畔에青年屍

자살이나두신이나 자못의문되는시테

## 龍塘浦에서 靑年又橫死

……검덕숙(海州南旭町金泳……)에잇는 김석만(金錫萬)……한 청년이 하루날의초민……지못하야만경창파에락시……라고잇다가 드리치는 밀물을수습지못하고 드듸여 바다에 긔운업시 써나려……(해주)

## 在滿同胞 切迫한悲運

취톄할만한수단으로 호구됴사를엄밀시행

……커만주에는 소위일중 비밀협약(日中秘密協約)이란것이 생겨서정드른고국을떠나슬슬한만주벌에서 여긔저긔헤여저 외로히 사는 조선사람들을 괴로히군다함은 루보한바와 갓거니와날이 갈스록이디방

**저디방의** 중국관헌들은 상부의명령이라 칭탁하고 이주동포들에게 행패가 만허서재만 이백만 이주동포들은 오도가도……

……디방의 소식을드른즉 역시봉텬성(奉天省)의관할임으로봉텬권청경무처장우진(奉天全省警務處長于珍)이가

**소위일중** 협약에의지하야손가태 현지사(孫家台縣知事)에게명령하야 그현 관내에 이주한조선사람들을 엄밀히 감시하야만일이주조선사람으로독립운동을 목뎍하고 행동이수상한사람을 발견하는시에는 엄중히취톄하는동시에 그러한 조선사람들을취톄할예방으로몬저이주조선사람들의

**호구됴사**(戶口調査)를 세밀히하여두라고명령하엿슴으로 그명령을바든 손가태현지사는즉시관내각경찰로하여금이주조선인의 세밀한 호구됴사를행하게하는중이라더라(안동현)

## 病苦로自殺

낫지안흘줄알고 움물에싸저죽어

부천군다주면 사충리(富川郡多朱面士忠里)이백구십륙번디 홍청조(洪淑祚)(四四)의처 김씨(金氏)(三○)는금년정월부터폐병(肺病)에걸리어서 가진약을다먹엇스나백약이무효도 병반점점 더하야 가든중 근일에는 몸에고통이 더욱심하야 아모리 하야도 낫지안흘줄알고 항상세상을 저주하며 죽겟다는 말을하던중 지난사일 오전한시경에 남편홍성조가어린딸을오줌뉘이려이러나보즉 어둔방중에 안해(妻)가엽슴으로대소동을하고집안사람이 차진결과 약한시간후에옹물에 싸저죽은것을 발견하얏는데 아마병에견되다 못하야 남편의자는틈을타서자살한듯하다더라(인천)

## 東京에서온 水害慰問品

리재민에게분급

일즉이업든홍수로인하야 조선각디에서 집과먹을것을일코 거리에 방황하는동포의 수가얼마나만흐며 귀중한목숨까지 일흔사람이얼마나만흔가 그참혹한형상을들은 일본동경시(日本東京市)에 거주하는각계급으로서 조선수해리재민(朝鮮水害罹災民)을위하야 뜨거운사랑의동정품(同情品)이 김포군텽(金浦郡廳)에도착하바 군텽(郡廳)에서는 그위문품(慰問品)을 군내각면(郡內各面)으로보내여 일반리재민에게분급(分給)하리라더라(김포)

## 二村洞에腐屍

수재때에 죽은사람인듯

오일오전륙시경에 순경하든 순사가 이촌동(二村洞)구번디의스탄다ㅡ드석유회사 창고압사장에서 표류된시톄하나를 발견하엿는데 사십여세쯤 되여보히는 장정으로 주소와씨명은 알수업스나 시톄의반부이상이 썩은것을보면 아마칠월중순경 대홍수때에익사한것갓다 더라

## 초불이모긔장에부터 雙童兄弟가燒死

산모도역시생명이위독하다

지난일일 오전열두시 가량이나되야군산부영뎡(群山府榮町)옥산의원(玉山醫院)압헤는수십명이모아서서 엇던치료를 밧고잇는환자들을보면서 가긍이 녀이고 측은히 녀이는 얼굴빗흐로수군거리게되엿는데 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대군산부영뎡 삼십삼번디(群山府榮町三三)박수만(朴守萬)(二九)의집에서 그의처되는 윤성녀(尹姓女)(二三)가

**삼개월전** 에나은쌍동이와 누어잠이곤한가운데서 이날밤열시경에 난대업는 불이야소리가나면서 윤성녀 옷에는불이 붓고 윤성녀와쌍동이가 자는방안는 불밧이되며 일시대혼잡을 이룬가운데 불을쓰고 어린아이도 구원하게되야 급히전긔옥산의원으로 치료를 밧고저갓섯다하며 그불이 이러난원인은윤성녀가 곤이잠든사이에 켜노은초불이 모긔장에 부터 그것이벽에 부튼조희로 옴겨붓자 발견하게되엿슴으로 윤성녀는 불투성이로 황급히나온후 리웃사람들을식혀 어린아이들을 구원한것을치료하엿스나 지난이일 새벽에쌍동이형데는 죽엇다하며 윤성녀까지생명이 위독하다는바 마츰 불이낫슬쌔는 전긔 박수만이가 집에업섯다하며그는마차군으로

**그날그날** 생명을지속하는중 돌연이러한 참사를당하고 엇지할줄을 모르며 그의참상은 참아보지못하겟다더라(군산)

## 日人中山橫暴

부녀를구타까지 대단치안흔일로

충주충뎡(忠州仲町)에사는일본인중산(中山)이는지난이일오후칠시경에대단치안흔일로일출뎡(日出町)김창익(金昌益)의안해되는이와 말다툼이되자 어린아이잠이쌔인다는 리유로 욕설하며구타까지함으로전긔김씨의안해는분함을이기지못하야강경히 항거코자하얏스나 여러사람들이 말리여 그만두엇다더라(충주)

## 白晝大路에强盜

피해자는십삼세소아 범인은종적이묘연해

평북강계군강계면서부동삼화상 장경헌(平北江界郡江界面西部洞雜貨商張敬憲)은지난일밤에 식은강계지뎜(殖銀江界支店)에서할인(割引)차용한약속수형일백오십원의 지불긔일임으로 이를 지불키위하야 읍내서부동박원룡(朴元龍)의집에임치하엿든 돈일백오십원을자긔사환십삼세된리영청으로하여금동일오후두시경에차저가지고도라올지음에 엇던청년한명이돌연히 전긔리영청의뒤를딸하서서부동일본인촉립장길(足立長吉)의 집 부근에 이르러 사람의 왕래가젹은틈을 타서 전긔리영청을 도로에혼도식인후 가젓는돈 일백오십원을 탈취도주하얏다는데이급보를접한 강계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인 리영청을 호출하야 당시의상황을됴사하는 일방에 범인을극력 수색중이라는데 아직범인의 행방은묘연하다더라(강계)

## 三千餘圓橫領한 康翎郵便所長

경찰이톄포취됴중

황해도옹진군부민면(甕津郡富民面) 강령우편소장(康翎郵便所長) 도뎐정마(島田靜馬)는공금삼천이백팔십륙원오전(三千二百八十六圓五錢)을횡령한사실이 경성톄신국원이 출장하야 문부를검사한결과발각되야강령경찰관주재소원(康翎警察官駐在所員)에게톄포되야지난일밤 옹진경찰서(甕津警察署)로호송되엿더라

## 武裝團이住民銃殺

지난삼십일의주군광평면에서

지난삼십일오후열한시경에의주군광평면하광동김준호(義州郡廣坪面下廣洞金俊浩)집에 삼병의무장단이 드러와서 당시 그집에류숙중이든 동면청수동 김태봉(同面淸水洞金泰奉)을총살하고또동동윤창옥(同洞尹昌玉)와 한명의집에서 군자금 이십원을 령수한후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전긔 김태봉을사살한 원인은아직알수업다더라(의주)

## 義州署警戒

삭주에온무장단으로

의주경찰서(義州警察署)에서는 지난 이십구일밤에 삭주군량산면(朔州郡兩山面)주재소를습격한무장단의 만일을 념려하야그린접한의주군옥상면(玉尙面)에 오명의 수색대를 파견하야경계를아조엄중히한다 더라(의주)

## 台興洞에衝火

군자금을 데공하라

지난일일오전세시경에 희천군장동면대흥동송텬주(熙川郡長洞面台興洞宋天柱)의집에 일병의무장단이 드러와서군자금을데공하라고청하엿 현금이업다고 대답함에불응하야 너는이런부터 관헌들과 친근하는터이라도 커히 용서할수업다하고 곳그집에 방화하야 전소케한후 종적을 감추엇다더라(의주)

## 東新面에도 一名銃殺

군자금안낸다고

지난삼십일 오전한시경에 운산군동신면마장동백남옥(雲山郡東新面馬場洞白南玉)의집에 한명의무장단이드러와서군자금을청구하엿스나 이에 응치아니함으로 즉시그사람을 사살하고 또그이웃에잇는김시옥(金時玉)의집에가서군자금이십원을령수한후종적을감초앗다더라(의주)

## 少年軍開營式

시내중림동소년군개영식(中林洞少年軍開營式)은 륙일 오후두시부터 중림동련리교당(天理教堂)내에서개최하리라고

## 늑대에犧牲된 兒孩가벌서七人

경북경찰서에서는말로만 토벌한다고일반이의심중

지난달초순부터 대구시외 각디에늑대의 해를입어 사람만상한것이 여섯명이요소(牛) 도야지(豚)합하야 십여두에 달하엿슴으로 부근각처에서는 인심이흉흉하다는데 삼일오전 한시경에 또시외달성군론공면삼리동(達城郡論工面三里洞)에서그동리 이백칠십이번디에사는 리규태(李圭泰)의 삼남주호(周鎬)(三)가모친과가티방에서자든중크기가

**송아지만** 한늑대가와서 무려갓슴으로 그집은 물론이오 동리사람까지 합하야 수십여명이뒤를 조차갓스나 찻지못하엿든바 사일아츰에야 그곳에서 략일리가격하야잇는위천동(渭川洞) 삼림속에서 발견하얏다는바 이러한 놀나운소식이 자조들리되 말로만 구제한다고 하는경북경찰부에대하야일반은만흔의심을 갓는다더라(대구)

## 同業者가窃盜

인삼팔러대련갓다가 적수공권으로도라와

개성군송도면 고려뎡(開城郡松都面高麗町) 구백사십일번디사는 박근성(朴根成)(三四)은 근본남의상뎜에서고용하든사람으로 서울로장사하려 왕래하든중 경성팔운동(京城鍾雲洞) 김창성(金昌成)(二九)을알게되야자조맛나매 서로친분이 깁게되얏는대 김창성의말이 이번대련 박람회(大連博覽會)를 리용하야 계란(鷄卵)과인삼(人蔘)장사를하면 만흔리익을 볼터이니 가티가자함으로 인삼팔백이십원 어치를 사가지고 팔월초순경에 대련으로가서 서공원륙칠호 박영대(西公園六七號朴英大)의집에서 두류하고 잇든중 팔월이십일에 박근성이가업는틈을타서김창성이가 인삼가방을가지고 도망가서 ……방으로 차즈나 차즐길이망연하고수중에는돈하푼이업서오도가도못하게되얏섯는데객디에서 하로도돈업시는 잇슬수 업슴으로돈도업시인천(仁川)오는배를 탄다는것을 지부(芝罘)로 가는배를타서또다시조선을멀게써낫다가령사(領事)의호송으로재작일인천오는공동환(共同丸)을타고왓다더라(인천)

## 本妻를烙刑하고

상해죄로검사국에

옥구군미면신규리(沃溝郡米面新規里) 고자중(高自重)(二六)은 자긔안해되는 박성녀(朴姓女)이가동리사는 김맹순(金孟順)이란자와 불의의정을통하고 지내왓다하야 항상빨래방치와 몽둥이등속으로 여러번 구타한일이 잇섯다는바 지난달 이십이일에는 무슨말다툼을쯧테 죽어라고따린후 두다리를묵거노코 허벅지와다른곳을 다섯번이나 인두로 단근질을 하얏슴으로 기시는박성녀가 혼도까지 하얏섯다는데 드듸여 고소한바가되야 고자중이는 그간군산서에서 취됴를밧다가 상해죄로검사국으로 송치하얏다더라(군산)

## 逃走한橫領犯

이년만에톄포

옥구군개정면발산리 최몽진(沃溝郡開井面鉢山里 崔夢鎭)(三三)은리리화성농장(裡里華星農場) 백산지장(白山支場)에 근무하든중 작년일월경에 동농장소작인삼사인에게 비료갑과 소작료로 륙백륙십이원팔십전을 집금하야가지고도망하엿는데이번에 톄포하야 취됴를밧다가 횡령죄로 검사국으로 송치햇다더라(군산)

## 寧邊에늑대出沒

도야지를물어갓다

평남안주(安州)디방에는 요사이 늑대가출현하야 백주에아이를물어 그곳주민들은 불안중에 잇다는데 평북녕변군 독산면룡뎐리(平北寧邊郡獨山面龍田里)에서도 지난달삼십일밤 열시……

## 日人이作黨하야 朝鮮人을毆打

일인의초대로연석에가다가 무고히일인에게구타를당해

함남리원차호항(咸南利原遮湖港)에서는 지난달이십사일밤열한시쯤되여 조선사람하나이 모진매를마저왼몸에 붉은피를흘리고 개천에거구러저 인사불성의 대참극을이루엇는데그엽헤는일인사오명이 포위하고 왓다갓다하며 의긔양양하게 죽인다고떠드는바 그자세한형편을 알어보면 그러케몹시마저 정신일흔사람은원적을 강원도(江原道)에 두고 지금으로 부터한이년전에 그곳에와서 거주하는 목수김명섭(木手金明燮)이란 사람인데 일전에

**당디에서** 상업(商業)하는일본인대뎐(太田)이란자의창고를지어 주엇든바 그자들은소위락성식(落成式)을한다고김명섭이를청하야 음주하다가 여러일인중에산본조(山本助)란목수와말다툼이되는데그래도낭을초대하엿다는 태뎐이란자외에 몃사람의 일인이협력하야 그와가티란타하여 개천에 미러너엇는바구경하는 사람에게까지 향하여달려들어 위협하엿다하며 내종에그모양으로처참이

**격구러저** 정신일흔그를 태뎐의형까지 뛰여나와 게다로 막차버리엇다는데 처음부터 그엽헤서구경하는사람들은말리려하엿스나그자들이칼(短刀)을내휘두두고폭언횡행함으로 말리지도못하고결국그러케되엿다는바 공의진단(公醫診斷)에의하면열흘이상치료를요 할것이라 하며 본인의친족은소관주재소(所管駐在所)에고소하리라는데 마지막에일인히뎐(回田)이란자도 순사(日巡査)와가티다니엇다는데그자의말에 주재소에서 오라고함으로 그와가티갓다고 한다는비 일반은그사이에잠긴 내막을의심한다더라(차호)

## 英陽地震

시계추가 일시는섯섯다고

사일오전에 영양(英陽) 경찰서로부터 경북경찰부에 도착한뎐보에 의지하면 사일오전일곱시십분경에 동디에는 약일분간의 디진이잇서서 시계의 추가슨만치되엿섯다는데 조선에서는 시계의 추가설만한디진이 잇기는 처음이라더라(대구)

## 小兒물어간

늑대네머리를잡엇다

경긔도진위군송탄면도일리(振威郡松炭面道日里) 륙백칠십일번디한홍석(韓興錫)의장손(長孫) 세살된어린아이를몃칠전에 늑대두머리가 물어다먹고 머리만남긴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 소관주재소에 보고하는동시에 그동리원제동(元濟東) 원제승(元濟昇)양씨는동민백여명을 거느리고 도일리뒤人산을 수색하야 늑대네머리를 잡앗다 더라

## 구경하다가

중상을당하얏다

충주읍(忠州邑)에서는지난이일……하오팔시경에 씨름장에 ……한 관중은 보기편리한곳을 차지각기둥과곳에 올라 구경하든바경관석(觀覽席)을 기동과연목으로가설(架設)를지엇든바수십명관중이그곳에 올라장심하고 씨름의승부를보고잇는때에 가로매인 재목이부러지며 미테서 구경하든안림리(安林里)리을선(李乙先)(二九)이가치여서좌편머리로부터 억개등을 부상하야충주의원(忠州醫院)에서치료를밧는중인데 생명에는관계업스리라더라(충주)

## 脚戲場에서 巡査拔劍

부근인민의 원성이자자하다고

경북의성군귀천면유산동(慶北義城郡龜川面酉山洞)에서는지난팔월삼십일큰씨름판(脚戲場)이 열리엇는데 인산인해로모힌 구경군가운데서 그면 주재소에 근무하는 순사권모(權某)는 들연히 아모까닭업시 인민들이리커리 무수란타하다가 돌연히다시자긔의 찻든군도(軍刀)를 쌔어서 동군안계면룡긔동 손병일(同郡安溪面龍基洞孫炳日)의인손목을쳐서 한치가량이나 버여젓는데 그제야일반군중은『무리폭행하는경관』이라하면서아우성을치고 모혀드니 권씨는그소리를듯고주재소로도주하엿는데 그주재소수석순사광뢰(廣瀨)의말은『발검이사실이라하면면직(免職)이 되리라』하는데그부근인민들은 권씨에대한 비난이자자하다더라(의성)

## 故金周容氏遺志로 蠶室里에曙光

구제가옥백여간을건축하며 학교경비까지를담당할예뎡

## 責任者金一善氏의施設

일즉자선가로명망이잇던고김주용(金周容)씨가삼년전별세당시에 삼백석추수하는 논을자선사업에써달라고 유언하고 그책임을김일선(金一善)씨에게맛겻던바금번 수재로시흥군 신동면잠실리(始興郡新東面蠶室里)는전동이 몰락상태에 싸지게되든동시에 별로구제를 바들길도업승으로 이에 김일선씨는고김주용씨의 유지를따라 동리주민에게동면반포리(盤浦里)천여평대디를사서 백여간 주택을건축하여주기로하고 벌서 착수하엿고 또는 그들의장래를 위하야양잠과데사(製絲)업을장려하며동리흥동학관(興東學舘)의 경비를 보조하여교육까지 원조한다더라(송파)

## 刺身鬼檢擧

죽걸에불복하자가잇다

전남장성군(全南長城郡)에 모두히네 중독자가 만히 출몰한다함은 이미본보에 루보한바어니와 당디경찰당국에서는 그박멸에 노력중이든바 팔월중에검거한수가 아홉건이나 된다는데 권부 죽걸을바든중에 황룡면월평리(黃龍面月坪里) 량상룡(梁相龍)(三二)만은 죽걸에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야 광주디방법원검사국(光州地方法院檢事局)으로 넘기엿다더라(장성)

## 失足하야溺死

내사가를지나다 가실족하야

원적을 경남밀양군청도면(密陽郡淸道面)에두고 현재 고성군고성면죽계리 정모(固城郡固城面竹溪里鄭某)의집에 고용살이하는 오학선(吳學善)(二六)은 지난팔월이십일일에 밤내(栗川)다는곳을 지나가다가 실족하야싸저죽엇다더라(고성)

## 南浦驛頭에 日女自殺

원인은히쓰데리

진남포부삼화뎡(鎭南浦府三和町) 사십칠번디산뎐수차(山田秀次)라일본사람의 처산뎐(山田)(기요)(四○)란녀인은 지난사일오전다섯시오십오분에진남포역(驛)을 떠난긔차가 동역구내(構內)데일석보인드를지날때에 선로(線路)엽 밧헤 숨엇다 가돌연히『레리』에 뛰여드러 진행하든긔차에 허리가든허저 아츰해빗이 빗긴궤도(軌道)우에 립리하는데 그녀자는 작년어느달에중학교(中學校)에다니든아들의죽엄을보고 심로하든 쓰테『히스데리』증이생겨이째까지페인의생활을하고 지내다가 지난삼일에가족들이 깁히잠든고요한 밤에홀로 뛰여나가 전긔선로엽헤잇는밧(田)헤 숨어서 긔차가떠나기를 기다리다가 마츰내그가티최후를 마친것이라고 하는데진남포경찰서에서는유목(有木)경찰의로 시톄를 검시하후시톄는곳그가족에게인도하엿다더라(진남포)

## 휘파람

▲충주화월관(忠州花月舘)에잇는 향심의포주(抱主)리모는 화대(花代)를맛기에 단도로위협까지하얏다▲인천룡리일월관(仁川龍里日月舘)주인김학수(金鶴洙)는료리갑십원쯤에 남의영업과신분도 생각지안코 료리갑을물어보앗다는 구실로 료리먹는 구경도아니한사람을걸어 설유원을 데출하엿고 또선군작당하야 영업상소에 가서 야료를하얏다한다 ▲료리주인이나기생포주는김가나리가나 성은달러도 성질은 똑가튼작자들인모양 파는데는 힘을아니쓰고밧는데만 힘을쓰는것이 유리할가?

# 가뎡부인

## 가평론 질소본위의 의복개량문뎨

三村人

◇가을이 왓슴니다 아낙네들의 밧븐때가 되엿슴니다 더욱히 압흐로 이십여일 밧게 남지 아니한 추석(秋夕)준비등으로 골몰할 때가 되엿슴니다 그뿐아니라 겨울옷준비로 집집마다 밤이면 다듬이소리가들리게 되엿슴니다 이때를 당하야 무엇보다도 아낙네의 고심은 의복문뎨에 잇슴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복제도는 『가을』부터 풀을먹이고 다듬질아니하면 안되게된 것이 아낙네를 위하야 가장큰고통인줄로 생각함니다 그리하야 안에서는 의복범절과 음식바라지로 그날그날의 시간을보내기에 한시도 쉬일틈이업고 잠간이라도 마음노코 질길틈이 업슴을 생각할때에 엇지동정하는 마음이 업스리오 ◇우리는 모든것을 고치어야 함니다 우리의시대는 고처사는시대올시다 의복 문뎨도 될수만 잇스면 경제되고 수고되고 모양잇고 오래입을것으로 고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외다 그러나 이와가튼생각을 하는압자는 불행히의복에 대한 아모지식도 업슴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야 생각함이 잇다 하면 다음과다른몃가지 조건을 드려서 여러분의참고나되시게하라함니다 ◇옷감은 갑헐하고 튼튼하고 보기조흔것을쓰되될수잇스면 다듬지안코입을수잇는것 ◇가튼가음이라도 흰것 보다는무색을취하는 것이 조흘것이오 빗갈도 절긔를따라 다르겟지만은 겨울 옷에는 심색을 쓰는것이조흠 ◇갑만코 보드라운 옷은누구나 실혀할사람이 업겟지만은 일반으로 가난한우리의 살림에는 도로혀 금전상은 물론시간상 로력상에도 막대한 손해가 되는것이니되도록 피할것 ◇이상의 몃가지말슴은 오즉간단한 례를드름이니『질소를위주한 의복개량 문뎨』에 대하야는 여러분이 친히만히 생각하시기를바라고자함니다

## 나즌코가엇저면 놉하집닛가

저는명사십리(明沙十里)해당화처럼사람의사랑아니남자의사랑을한업시밧는기생의몸이올시다 혹은기생을일러천한몸이라하고심지어기생은사람이아니라고까지함니다 그러나 기생에게도 다른사람과가티 눈도잇고 코도잇고 입도잇고귀도잇스며 우리들에게도 사랑이잇고 정조가잇슴니다 다만보통녀자보다 노래와 춤의기술을 더배웟슬뿐이요 얼골이나 몸맵시를 더어엽부게 하기를 스사로 힘쓰는것뿐임니다 다시말하면 여러분신사들의 눈을 즐겁게하고 마음을화평케하고 그대신에 돈을버는것이올시다 이것도 한직업이라고 할수밧게 업슴니다 그런데저는 금년스물여덟살이올시다 원래 평양태생으로 벌서여러해전에 서울에올라와서 방금○○권번의 기생으로 잇는바저에게는한가지큰유감이 잇슴니다 저의얼골은 그다지남보다뛰여나게아름답지는못하나 남에게 빠지지는 안슴니다마는 유난스럽게 남보다코가 납작하야 얼골전톄의 미(美)를업새여 줌니다 직업에번삼하신 여러손님의수고로 웃음잇게할 제의얼골을 더어엽부게하기위하야 코를좀 도두라하오니 그방칠을일려주시기 업대여바람니다

(○○券番○月○)

이목구비만잇스면 사람이라할진댄 납작한코도 사람의코인즉 붓그러울것이업고 코놉흔것이 미(美)의 원측이아닌 이상 코나진것을 미아니로도 볼수업슬것이올시다 사람을 따러 혹은납작한코를 미로볼는지도 알수 업슴니다 병원에서 융비술로 코를도돕수도 잇기는잇스나 그것은오히려 부자연한즉 자연미를업새는것이될지도 몰음니다 융비술을하야 코를 도두거나 안도두는것은당신의자유에맛기거니와 나의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먼저마음의 미를취하십시오 마음이 아름다온자라야 만사람스러운 사람이 상대를하여줌니다 모든사람이 당신의얼골이나재간을보고깃버하게 하지말고당신의 아름다온마음과덕을보고깃버하게하시오 이것이당신의직업에도 물론해를 바들일이 아닐터이오 만약해를밧는다면 고맙게알고 뛰여나오시오 사회는 당신의손목을잇쓰러 아름다온 마음을 가지고사는 참사람의 생활을 지도하여주리다

## 가뎡실험과학 경험으로어든신긔한법

==바린도화용지를 엇더케리용할가==

◇……추긔개학이 되엇슴으로 새로운정신으로 학교에 나가는어린소학생들이 날마다 글시를쓰고 그림을그리기에 분주합니다 남보다 잘하라는마음에 도화지를몃장식 바리면서도긔어히자긔뜻에맛도록 그려가지고야 가는것이 귀엽고도 신통한 아이들의특증임니다 여러분 학교에다니는아이들이 그림을그리다가 바린화용지(畫用紙)를무엇에쓰십닛가? 썬썬하고둑거움으로 뒤지나 코지로쓰기에도 그다지뎍당치못하고 풀이 잘붓지아니함으로 무엇을바르기에도 별로조치못합니다 그러나한가지 가장긴요하게쓸것이잇슴니다. 아이들이 쓰다버린도화지를 모하두엇다가생회(生灰)를물에풀어거품이 일어나거든 그때에그도화지를그속에담거두십시오 두어간쯤담거두엇다쓰내여해에말리면 훌융한흡취지(吸取紙)가 됨니다

==돗자리에떠러진 잉크를업시는법==

◇……돗자리나 식골서 흔히가는 기직삿자리가튼데 잉크가업질러지거든 소곰을 뿌려두엇다가 닥그십시오 단번에 잘지지안는다할지라도 여러번 문질느면 깨끗하게씨집니다

==사긔그릇에무든 비린내제하는법==

◇……사긔그릇이나류리그릇에 비린음식을 담어두엇다가 쏘드면 내암새가흉악합니다 그런때에는 차를쓰려서 그릇에씨츠면 악취가 업서지고 향긔로운내암새가나는것이올시다

==계란껍질은그릇닥는가루만들다==

◇……계란껍질을모하서정하게 물에씨처 말렷다가 절구에씨여 고흔가루를 만드러서 사긔그릇이나 놋그릇을닥그면 조흔하고 윤택하게닥거질뿐아니라 그가루를 물에풀어 류리병속에 너코 상하좌우로여러번흔들면 병속에 잇는때가 깨끗하게도씨집니다

==남은음식을버릴때는재를덥허라==

◇……요사히는일긔가얼마큼서늘하여젓슴으로 음식이 잘쉬지안으나혹엇더케잘못간수하야음식이 쉬이던지 또는먹다남은음식을 내여버려야될경우가 잇습니다 그것을 쓰레기통가튼데 그대로내여버리면구덕이가생깁니다 그런것을 내여버릴때에는반드시 화로나아궁이에 재를떠서 그우에뿌리면신통하게도버레가 한마리도생기지아니함니다 사과 배 수박껍질도 쓰레기통에내버리면곳버레가생기여욱실욱실하는터인즉 재를떠서 부으십시오

==떠러진 양말을 엇더케리용할가==

◇……구두버선이해여저서못신게된것은 걸레를만드되 쓰면매우좃슴니다 낡은구두버선은 두켜레만가지면 큰걸레가 됨니다 버선바닥이나 뒤굼치가 해여젓거든 잘러내여버리고 배일을갈려서네모가번듯하게오려가지고 비겨놀한의걸처사면으로돌려바을것이올시다 그리고재봉칠이잇는집에서는가로세로여러번박으면걸네가튼튼하야오래동안쓸수잇슬것입니다

==마개뺀맥주는 거구로세우라==

◇……한번 마개를뺀 맥주는아모리 다시꼭막어두라도 김이 나가서맛이업서집니다 그럼으로뚝께―두는속을 병에남겨두엇다가 먹으라는 사람은병마개를 꼭막은후 병을거꾸로 세워두면 맛이조금도변치를 안음니다 ―끗―

못쓰게된것을 유익하게 쓰도록 만들수잇는 방법이라던지 여러번 가뎡에서실험하야 어든 약품과 살림사리에 긴하게쓸 도리를 먼저깨다른신분은 언제던지 본보『가뎡부인란』으로긔별하여주시면감사하겟슴니다

키다리녀자와짱달보 ― 이것은 미국코니섬에잇는『루나파크』수영장에서키다리와 짱달보가 키대보는것임니다 키다리는『마도아젤、톤틔、룩벨』이라하야키가칠척륙촌이나되는 녀자어오그다리사이의 어린애처럼뵈이는이는 당년이열여덜살되는 헨부인과『파웃치』라는키가일척구촌 사분되는사람이다

# 金剛禮讚 (三八)

白雲香徒

## 降仙臺

◇須彌는梵語『수메루』의對字니 譯하면妙高혹은妙光이라는말입니다。世界의中心이된다하는金剛不壞의山이니 人間인四大部洲가다그四方에벌려잇고天帝인釋提桓因의宮이그頂上에언처잇다하는것입니다。佛敎傳說의須彌는어쩌하야妙高하얏든지모르거니와 金剛山의須彌는첫재奇岩이蓄積하야一峰이妙高하야스매 그것이常識的으로도매우允當한일홈임을알것입니다。그러나須彌峰이金剛山에서도특별히놉고깁고크고아름다운一峰임을생각하면또한『妙』道의天宮이아닐수업섯슬지니 이天宮의關係로須彌의일홈을借用하게됨이더개眞相일것입니다

◇須彌峰은미상불奇岩의一大靡藥임니다。層層히面面히神工鬼斧의공교스러움을자랑하는것아님이업슴니다。庵前의멀둔한鳳岩과庵上의날개를는듯한龜岩과岩側의甲冑를분명히가추將軍岩과一老僧이거울을버틔고데미다보는듯한老丈岩만이이상하게생긴것아님니다 庵의右로부칠데업는발을허공에너흔고怪石떨기의등성이를올다서면南邊의淵底로須彌塔이모존이나려다보입니다 이등성이를永郎仙人이나려와노든데라하야永郎臺라하니 太上洞막바지를올라가지아니하는이는簡便하게여긔서須彌塔을나려다보고말기도합니다

◇須彌庵은海拔一千二百七十餘米突의山地에잇는一小庵으로 손이외고길이險하야比較的들림이적으나 幽邃와曠遠 奇峭와博厚 觀賞과眺望을兼有하기로는아마金剛山에서도 쪽이들음즉임니다 일홈을짓기로 말하면峰上峰下로 자미잇는 일홈을부칠것이 열스믈반아님니다 그러나須彌峰의勝概는 石奇에만그치는것아니니 골건너로바라보는『月明首座공방등』의高原的肉山味가튼것도 齊梁만먹다가疏筍을씹는것가타서떡으나정다운생각이나며 西으로바라보는凌虛峰의첨잔코도아릿다운둥긋한모양도 모소리만흔金剛山구경에날카로워진神經을눅혀줌이큽니다

◇여긔서나려와 西으로一溪를건너서한참만에 라서면 언청이가티 니즈러진 兩石壁으로奇異를다토는衆峰을 내다보매마치蹄地鏡속을데미다보는것갓슴니다 예서右로부터틈둥도긔기도하고 배로밀기도하면서고나무ㅅ가지에달기도하야辛萬苦하야그絕頂에를올라가면又一新排置로內金剛의全面目을緋賞식여주는降仙臺가됨니다 圓通庵의그것을다시한번본흔테서보는것일따름이지마는 이러케잡안놉흔하진位置에는한아쎄문에金剛山이初對面가튼아주딴판의感興을자아냄이신긔함니다 西으로外方을通하야淮陽白岩山이쪽의重峰長嶺을당기어 몸도그한편에由일것임니다

◇望軍臺에서처럼또렷하게金剛山을보지마는 그러케럼밋출치바치는듯한답답이업고 圓通庵에서처럼암원하게金剛山을보지마는 ……

# 여든물헤여건너

樹州

『칼、막쓰』는 그有名한共産黨宣言書가운데『資本主義의幽靈』이란말을각금썻다 그리고 『世界無産者는團結하라』는말도잇다 간단한『만니떼스트』인以上 『世界無産者』는 엇더한方便으로 團結하는細目의 說明은적히여잇지안타 나는 우에두말의가르치는 힘잇는眞理를 電感的으로도품을수업다는말이다 더러욋만한疑訝도 認識한다 그러나 엇더케資本主義의幽靈을退治하고 엇더케世界無産者가團結하겟느냐는 實現問題에드러가서는 고개가몃번이나비꼬여진다 여긔에 비로소煩悶이잇다 煩悶이업고서는안될것이다 硬派軟派로分類하여말함이適宜할는지社會主義에는社會主義가다만 一部의思想으로만取扱을밧든幽域을버서나 壯大한實際運動의互波를이르킨 오날에도 오히려儼然한二大潮流가잇슴만은看過할수업다 그것은막쓰와同時代人이엿든ᄲ크닌 傷感的의ᄲ크닌(막쓰가 ᄲ크닌을嘲笑한말)的社會主義思想、한世紀를건너뛰여歐洲戰爭當時에 또레쓰의細理想的社會主義、近年에와서는所謂英國의智識階級을網羅하엿다는페비안社會主義(待時期的穩健社會主義)等의各自見解는다르나何如間軟派에屬할밧게업는一派와막쓰系로나려오는『니쭐니히트』나『로사、룩……』……의 말하자면 實際的、激越的硬派를말함이다 나는 이런方面에對한 나의 未熟한思想과 智識으로는 이두潮流의優劣長短을가장自信잇게 立論할수업다는것을正直하게말한다 다만偶感에지나지못하는 것이나 나는社會主義에對하야 생각할때에는 旅行이란것이聯想이된다 旅行을하려면旅費업시는될수업슬것이다 그러나旅費 변통하느라고旅行을遲延케하거나 或은旅費를준비하랴는것도 업는것은아니다 따라서旅行하려면이것저것未備한것이잇든업든막나서는것이旅行의本旨이라 하는 것도理論이서는말이다 우에말한軟派社會主義―特히 『페비엔니즘』은『旅費잇슨뒤에야旅行이란할것이다』하는 가장隱當한合理的頭腦를가진旅行家에比할수잇겟고 硬派社會主義―特히『레닌니즘』은『旅費구하는동안에旅行의機會는노치고만다 가방들고 나서는날이旅行하는날이다』는 가장冒險的―그러타고決코逆理的임은안인―積極的의勇氣와自信이잇는旅行家에比할수잇슬것이다 主義實現에對하야積極的임과消極的의差異와 戰鬪에잇서서攻勢와守勢의判別이잇는以上攻勢라고 반드시勝利가잇는것이아니고 守勢라고 반드시敗北가 잇는것의아니다 다만各各스사로의境遇와實現方法에對한見解와思想趨向이다를것뿐이다 그럼으로 旅費변통하여가지고 旅行하려는이에게 旅費업시는 旅行하지못할것이잇느냐고 고집할수도업고 旅費업시 旅行하는이에게 위려한冒險할것업다고구지붓들것도어리석고無謂함이아닌가? 아이二十世紀大煩悶을 解決할에디피쓰가그누구인고! 報道의誤傳인지 (적어도誤傳으로밋고십다) 外國新聞紙를보면赤露는『소비엣、임페얼리즘(蘇農帝國主義)』의幽靈때문에煩悶하고잇다는 萬若事實이라하면 이것이무엇을說明함이냐? 차로資本主義化하는傾向을띄여간다』는것이다 萬若事實이라하면 소비엣러쓰의膝蹟을날함이냐? 그러치안는다면『第二의疾驅』『再次의飛躍』을압서는自然的調節이냐? 배는 그저도여든물(淺灘)에잡히여잇는가 無邊汪洋의大海에는어느때에?

# 小說 웃고십건우서라!

周相作 [33]

―三의二―

그러나 운명의실귀는 흉하는사람에만 그그림자를 나타내는것은아니다 그모진 검은니人발을 숨기지 안는것이다 봉선이는 신흥사의 청놀이하는시럼이 도라와도 그림자도보이지안햇다 아버지를 차질사람은 왜상밧게 나왓스나 찻는아버지는중되조차흉엇다 아비업는몸을으는자식은 날마다 섧어울어도 대답할아비는업섯다 울고울고또다시 울다 가지처서 아비의 얼굴도모르고 청명도업시 이세상을 하직하얏다 봉선이는돌만에또말홀일이생겻다

남편이떠나든 바로그날 쉬을은뒤집혓다 만세소리가 삼천리강토를 뒤흔드는통에 봉선이집 안방에서는 새로운목숨이 갑갑하든숨을쉬며오아―소리를세차게질럿다

『우리집에서는 만세부를사람이업더니 안방에서 만세를부르는구나』하며외할미도 딸의순산을깃버하얏다 그러나 미문에매어달은 고초쉬인새기가 업서질때까지 봉선간남편의 안부는들을길이업섯다

그후로사년! 얼마나 오랜세월이냐? 석달만에―― 저승에서나와 다시저승으로 도라가는동안에 잠간이승에서 다리를쉬여가라다가 인간살이가 하도군색함에 놀라훨훨날아간듯이 첫자식모양으로 백일안에 여인뒤에야 비로소―― 신의주에서 만세한번 못불럿건만 까닭업시붓들려 이태것고생하다가 노혀나와 봉선에와서보니 그동안모다 들떤진으로 옴겨갓다하기에 그리로 또차저가는중이니 안심하라하고 그동안가지처어잇서 순산독남하얏다는 쇼을사엇는데 몸청히잘아는지 궁금하나 지금은그러한것을 이약이할때가 아니라 남은인분이 잇고보면 쉬사리만날지모르나 사람의일은 귀필할수업는배니, 다만 어머님과잘지내라고 매오감개한 심정을그리어보내엇다 봉선이는 일변반기면서도 애가씨우고 가슴이압핫다 떠날제무엇에키우든지 그러케도 실죽해하든것을 하로만더 붓들엇섯든들 이러케는 안되엇슬걸! 하는생각을하니 어쩌면 모든일이 작년이만쌔와 요로케도갓게 일이거치러지는고? 하며 딸자한탄만하면서도 편진에 도착하면 엽서한장이라도 오려니한것이 한달두달이되여도 감감하더니 죽엇는지살앗는지 이날이째까지 차질길이업섯다

그러자 그해여름에 오라비가 동경에서 하긔방학이라고 나오더니 누의의 저금통장을어느결에훔처가지고 상해로 바람에불려갓다 그래도 청년이니제쩐은 뜻잇서갓스리라 기생 오래비된것만도 붉읽렌데 난봉으로돌릴게아니라 상해라면 두엇슬뿐아니라 내버려 가든중국영이매 행여소식이나 잇고보면 남편의 간곳도 알길이생길까하는 은근한축원도 업지안햇스나 그역시 헛꿍사인줄 알게될제 김흔절망의못으로 쎄지는듯십헛다

그러나 가엽슨봉선이의 설움은아즉도뒤에저히고잇섯다 륙십줄에들어선 어머니는 작년에멀을노치든경험을생각하고그때는 이번에는 별로간섭을아니하기로마음에 귀엽이 편하얏더니 자손으로이래저래올화가쌔이어시름시름 알는터에 독감이겹질리어아즉도싱싱하고여생이먼몸으로 어린딸자식들더러 송장을치우라고 그해겨울에 세상을떠나버렷다 그러면 가는사람도참아눈을 감지못하얏겟지만 남아잇는봉선이야 어떠 하얏스리오 나희겨우이십에참혹한어린죽엄을 두번이나 보고목숨보다더중한남편을 생리별한것도 섧거든 미워도내어미요 쌔와도 래산가터밋든홀어머니와 유명을 서로나호게되니 팔자도 이다지괴박하랴 내목숨이 그다지 중치안흐매 먼저가신 부모님따라 저승에나가서보면 넘제신데 알까하고이세상을한시밥비떠나나보앗스면하며 업떠저울다가도 어린동생이『언니!언니!』하며여개를흔들제

『내가 가면너는어쩌느냐』고 또울엇다 이세상이 하도갸륵하야사람의씨의눈물이말을까보아 도마터 울어주라고 태어난봉선이가아니언만은인간살이가이다지도 긔구하고 악착할줄이야참 정말몰랏고나! 갈길은 먼데 날은이미컴으럿다 앞히 캄캄하니 울며부르지진들이 뉘라든디에가엽다고 응할자가 그누구냐? 형이부르매 어린아오 대답할지요 어린아오울으면위로할사람은형밧게또다시업슬줄아라! 만일에 네형제측은하다 비신세 가련하다고눈물짓고 손잡는자 잇거든 그것은 살냄새 돈동녹에휩슬어와서 어룽미테 쉬스러노코배불으면룩룩차고 날아나는 오륙월파리쎄로만집작하여라네몸더럽히고 네낫깍기는밧게 섞고병든뒤굼고 헐벗을 차림차리는첫길이니 세상이웨그러냐고 새삼스러히무러야 누가 가르처주드냐 ……그러면 머디에 더한니밤 은영원히세일날이업단말가?

# 어린이란

## 하늘을만저보랴든뎡희

뎡희의집압헤는 들건너 큰산이 잇섯슴니다 뎡희는 학교에갓다올때마다 그산을바라보면 산봉오리우에하늘이 꼭 다은듯 하엿슴니다 그산봉오리우에 올라가면 푸른하늘을손으로 넉넉히 만저볼수잇다고 생각하엿슴니다 그리하야 자긔어머니를보고 하늘을만저보려 압산우흐로 올라가보겟다고 청하엿슴니다 어머니는 『하늘은 그러케 나즌것이아니다』하섯슴니다 뎡희는 암만해도 그산우에만 올라가면 하늘을만저볼듯 하엿슴니다 그리하야 뎡희는어쩌한날 하학한뒤에다른동모들과 산보겸하늘을만저보려고 압산우으로 올라갓슴니다 올라갈때에 무식무식한 생각이 낫슴니다。산숩풀속에서 범이나 식랑이가 곳뛰어 나오는듯 하엿슴니다。그러나 긔어히 한번 만저 보랴고 갑븐숨을 쉬어가며산봉오리까지 올라갓슴니다 산봉오리에 올라보니 산미헤서는 곳만저볼듯하던하늘도 뎡희의 나즌 키로는도저히 만저볼수 업게 놉핫슴니다。그리하야 다시들건너 자긔집을 내려다보매 자긔집 집웅에서도 하늘을 넉넉히 만저볼듯 하엿슴니다 뎡희는 헛되히 집으로 도라와서 그일을 어머니에게 말하엿슴니다 어머니는 뎡희에게 하늘이란 것은 사람의손으로는 만저볼수 업다는것을 자세히들려주엇슴니다。그러나 뎡희는 하늘을바라볼때마다 항상 이상스러운 생각이 낫슴니다